

트와이스, 미국 NBC '켈리 클라크슨 쇼' 출연



▲ 트와이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 싱어송라이터 켈리 클라크슨이 진행하는 토크쇼로 존 레전드, 두아 리파 등 굵직한 팝스타들이 거쳐 갔다.

트와이스는 '켈리 클라크슨 쇼'에서 '크라이 포 미' (CRY FOR ME)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 곡은 지난해 12월 6일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최초 공개해 화제를 모은 뒤 같은 달 18일 정식 발매됐다.

발매 이후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등 20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송 차트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결그룹 트와이스가 미국 유명 TV쇼 '켈리 클라크슨 쇼'에 출연한다.

지난 20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이달 27일 방영되는 미 NBC '켈리 클라크슨 쇼' (The Kelly Clarkson Show)에 출연한다.

이들은 다음 달 12일에는 일본 새 싱글 '쿠라 쿠라'를 발매하며, 오는 6월 한국에서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브스, 아이유 등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선정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수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등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1년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포함됐다.



▲ 아이유와 수지.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썬

지난 20일 포브스가 발표한 이 명단에는 아이유·수지·임지영 외에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 배우 남주혁도 포함됐다.

'국민 여동생'으로 통한 아이유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겸 배우로 성장했다. 최근 발매한 정규 5집 '라일락' 역시 호평을 들었다.

수지는 '국민 첫사랑'으로 통한다. 그룹 '미쓰에이' 멤버로 데뷔,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현재 사실상 배우로 전향했다. 최근 tvN드라마 '스타트업'에 출연했다.

한편, 이번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인은 총 23명이 포함됐다. 포브스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미국, 캐나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엔터, 예술을 포함 벤처 등의 분야에서 30세 이하 청년 리더 3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임지영은 지난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했다.

화사는 마마무 활동뿐만 아니라 '멍청이' '마리아' 등을 통해 솔로 가수로도 자리를 잡았다.

모델 출신인 남주혁은 드라마 '눈이 부시게', 영화 '조제'로 주목 받았다.

수지와 함께 '스타트업'에도 출연했다.

세븐틴, 일본 음원·음반차트 석권



▲ 세븐틴 일본 싱글 '히토리자나이' 자켓 표지. 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세븐틴의 일본 세 번째 싱글 '히토리자나이' (ひとりじゃない)가 현지 각종 차트 정상에 올랐다.

지난 22일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발매된 '히토리자나이'는 오리콘 차트 데일리 싱글 랭킹 1위, 일본 음반 판매 사이트 HMV 온라인숍 종합 1위 등을 기록했다. 앨범 발매에 앞서 음원을 선 공개했을 때는 일본 아이튠즈 종합 차트와 라인 뮤직, AWA(아와), 라쿠텐 뮤직 등 현지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세븐틴은 '히토리자나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팬클럽 '캐럿'과 재회를 약속한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멤버들이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영상통화를 통해 연결되고,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숫자퍼즐 정답

4	2	7	8	6	9	5	3	1
5	6	8	1	3	4	9	2	7
9	3	1	2	7	5	8	6	4
1	7	4	9	8	3	2	5	6
2	8	3	4	5	6	1	7	9
6	9	5	7	1	2	3	4	8
8	5	2	6	9	7	4	1	3
3	1	6	5	4	8	7	9	2
7	4	9	3	2	1	6	8	5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